



[요약] Time is running out

1. 기존에 비해 두려운 수준의 전망을 제시한 6차 보고서

- 가장 포괄적인 기후 변화 문제 협의체인 IPCC는 5~8년 단위로 보고서를 발표하며, 여기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황 파악 및 전망이 담김
- 8월 초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는 기존 보고서들에 비해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강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각국 정부 입장 혹은 글로벌 공동 대응 차원에서 보다 강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의 강제성을 증용할 당위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2.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ESG 관련 금융시장 자금 동향

- 지난 해에 비해 친환경 테마로 분류되는 개별 종목들의 주가 퍼포먼스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친환경을 포함한 ESG 테마 ETF로는 꾸준한 자금 유입이 진행 중. 전체 ETF 시장 내에서 ESG 테마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
- 자금 조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ESG 연계 자금 대출 및 채권 발행 규모는 올해 7월까지의 합계 금액이 이미 지난 해 전체 발행 금액을 상회

3. 에너지 섹터 내에서의 투자 동향

-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투자 역시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 중. 지난 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1년 에너지 관련 투자 가운데 화석연료 부분의 증가는 불가피
- 하지만 추세적인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더불어 21년 전체 발전원 관련 신규투자에 있어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70%에 가까운 절대적인 비중이 예상되고 있음

1. 기존에 비해 두려운 수준의 전망을 제시한 6차 보고서

지난 8월 9일 IPCC 6차 보고서가 발표됐다. 5~7년 주기로 발표되는 해당 보고서는 현재 지구의 기후 변화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및 의견이 담겨 있는 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과거 국제사회의 환경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을 만든 사례들이 많았던 만큼, 오는 11월 COP26을 앞두고 한 번쯤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기존의 평가에 비해 상당히 심각해진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 중온실가스의 농도와 온난화의 속도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 정도 등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평가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극단적인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상황들이 기존 평가에 비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이 공인된 상황이다. 결국 기존의 평가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던 각국의 환경 정책들은 더욱 강화되고 적극적 이행이 강제될 당위성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그리고 CDR 같은 내용들이 조금 식상해 보이는 소재들일 수 있으나 변화의 방향성이 확고하고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당위성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장기적 방향성에 입각해 관련 산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차트1] 2013년 이후 8년 만에 발간된 IPCC 보고서. 두 보고서의 지구 온난화 관련 수치를 비교해 보면 온난화 정도가 매우 심해진 것으로 평가 중. 이를 감안할 경우 향후 정책적 대응 의지는 더욱 강화될 개연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항목	AR5(13년 발간)	AR6(21년 발간)
CO2 농도	391 ppm	410 ppm
CO2 농도 과거 비교	최근 80만년 내 처음	최근 200만년 내 처음
역사적 CO2 누적 배출량	1,890 GtCO2	2,390 GtCO2
산업화 이전 대비 지표면 온도 상승 정도	0.78°C 상승	1.09°C 상승
해수면 높이 상승 속도	(1971~2006) 1.9 (0.8~2.9)mm/연	(2006~2018) 3.7 (3.2~4.2)mm/연
2100년 지표면 온도 상승 범위	0.3~4.8°C 상승	1.0~5.7°C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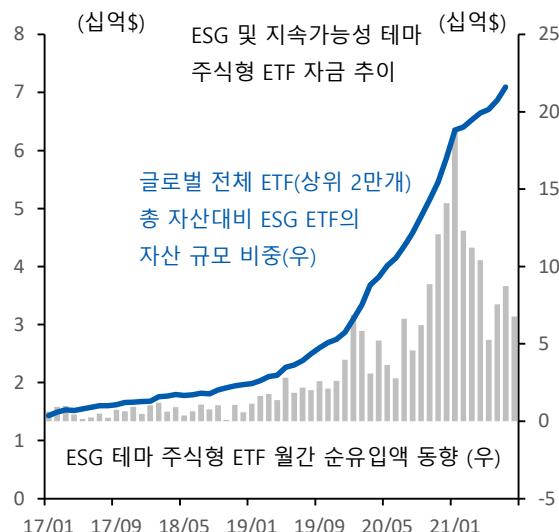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ESG 관련 금융시장 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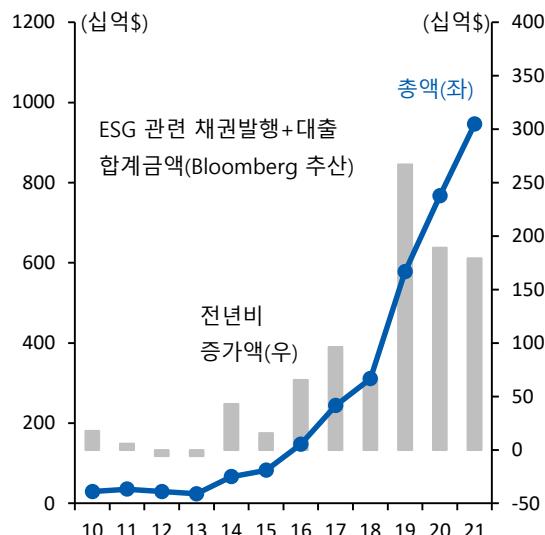
ESG 관련 ETF 자금 동향은 꽤 고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보다 자금 유입 속도가 다소 느려 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형과 채권형 ETF 모두에서 꾸준한 자금 유입과 자산 규모의 확대가 진행 중이다. 주식형 ESG ETF는 2017년 이후 월간 합산 기준으로 자금 순유출이 발생한 경우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글로벌 전체 ETF(상위 20,000개 합산, 모닝스타 기준) 대비 ESG 관련 ETF(블룸버그 추산)의 net asset 규모 비율을 계산해 보면 꾸준한 증가세가 눈에 띈다. ESG ETF의 전체 주식형 ETF 대비 비중은 7월 말 현재 7.1% 수준으로 추산된다. 2019년 초에는 2% 수준에 불과했다.

지금 조달 시장에서도 전체적인 ESG와 환경 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들이 진행 중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채권과 대출을 합쳐 ESG 목적으로 조달한 자금들을 집계해보면 올해 1~7월까지 9,330억\$로 집계되고 있다. 어느정도 규모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난 해 1년 합계가 7,672억\$였다. 지난 해도 19년(5,779억\$) 대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것인데, 약 7개월만에 전년 12개월 동안 발행된 채권과 대출 총액의 122%에 달하는 자금이 움직인 것이다. 가히 팔목할 만한 속도로 자금 조달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이다.

[챠트2] ESG ETF로의 자금 유입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양
상이며 전체 주식형 ETF 대비 비중도 상승 중



[챠트3] ESG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과 대출 규모를 합
산해 보면, 7개월만에 전년도 온기 합산 수치를 상회



자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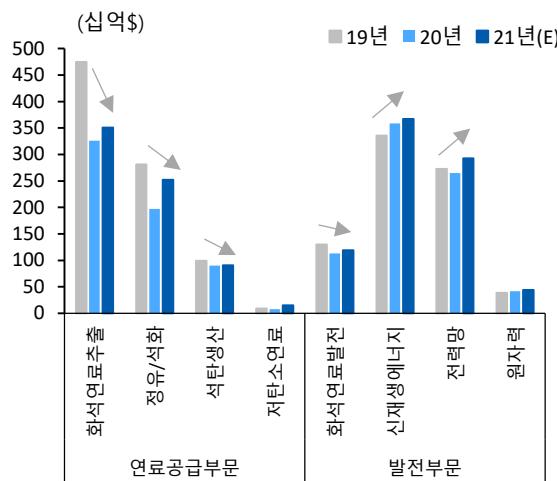
자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3. 에너지 섹터 내에서의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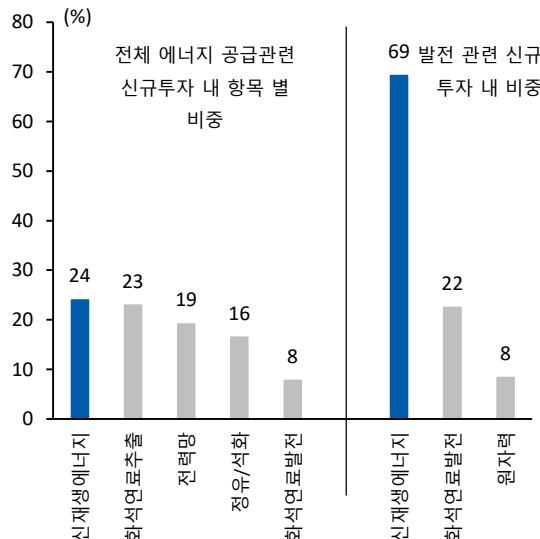
IEA의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섹터 투자에서 친환경 부문에 대한 집중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IEA는 지난 해 코로나에 따른 경제 충격 여파로 위축된 투자 부문이 존재하는 만큼 모든 에너지 유관 부문을 통틀어 관련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에너지 공급망과 관련해 약 1.5조\$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전체 에너지 투자의 4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연료 공급 부문은 주로 화석 연료 공정에 연관되어 있는 부문이다. 지난 해 경제 충격 여파로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던 반작용으로 일정 수준 회복은 시도 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우향 흐름이다. 반면, 전체 에너지 공급망 투자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경제 충격에도 투자 금액이 줄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21년 에너지 공급망 전체 투자 금액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이다. 전체 투자 금액의 약 24%인 370억\$ 가량이 투자될 전망이다. 순수하게 발전원과 관련된 투자로 한정하고 보면 올해 실시되는 발전원에 대한 전체 신규 투자 가운데 70% 가량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자료는 8/31 발간된 당사의 ESG 자료 'Time is running out'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4]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관련 신규 투자 추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항목의 증가세가 뚜렷



[차트5] 올해 신규로 투자되는 발전원 관련 투자에 있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거의 70%에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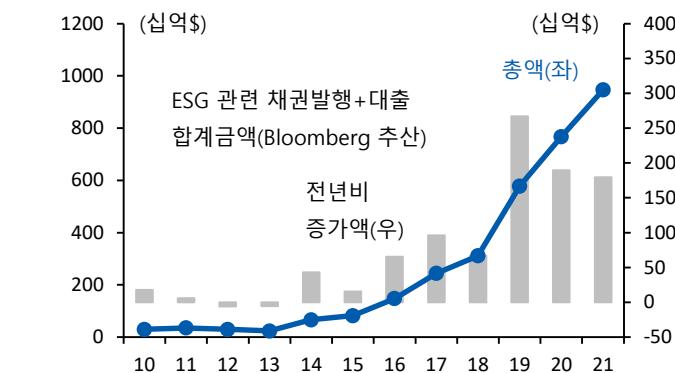
Key Chart

기준 보고서에 비해 기후 위기 상황의 심각성이 깊어진 것으로 평가한 IPCC 6차 보고서

항목	AR5(13년 발간)	AR6(21년 발간)
CO2 농도	391 ppm	410 ppm
CO2 농도 과거 비교	최근 80만년 내 처음	최근 200만년 내 처음
역사적 CO2 누적 배출량	1,890 GtCO2	2,390 GtCO2
산업화 이전 대비 지표면 온도 상승 정도	0.78°C 상승	1.09°C 상승
해수면 높이 상승 속도	(1971~2006) 1.9 (0.8~2.9)mm/연	(2006~2018) 3.7 (3.2~4.2)mm/연
2100년 지표면 온도 상승 범위	0.3~4.8°C 상승	1.0~5.7°C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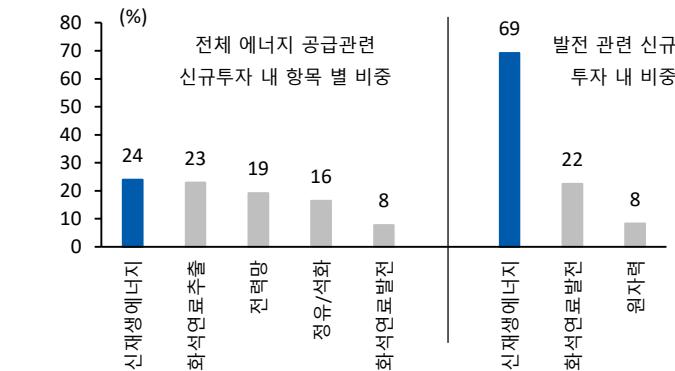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환경 등 ESG 목적의 자금 시장은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1년 신규로 투자되는 발전원 투자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70%에 육박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